

## 外國 專門大學院의 教育革新 사례

任 千 淳

(KEDI 經濟教育研究部長)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은 지금까지 그 자체로서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 대학원 교육이 고등교육 정책의 초점인 學部 교육에 비해 종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또한 최근까지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이 주로 학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양적 팽창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을 위한 教授人力 및 사회의 高級專門人力은 주로 해외의 우수 대학원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대학원 진학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급격히 증대하는 연구 인력 및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여성 및 고령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학문 탐구 위주의 대학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지닌 專門大學院에 대한 教育要求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 요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은 아직 전담 교수 요원이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산업화 추세의 지속과 함께 대학, 기업 및 공공 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專門大學院 교육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전문대학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 사회보다 훨씬 일찍이 대학원 교육, 특히 다양한 형태의 전문대학원 교육이 발달되어 왔고 그에 따른 정책적 경험을 축적해 온 구미 선진국에서의 전문대학원 교육의 발달 과정과 특히 근래에 들어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학원의 변화와 혁신의 추세 및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문대학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 2. 外國 專門大學院 教育의 發達과 變化

#### 1) 專門大學院 教育의 起源과 發達

전문대학원 교육의 역사적인 기원은 12세기 구라파에서 유래하는데 당시의 碩·博士學位는 동등한 수준의 학문 이수 과정으로서 대학 教授要員이 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나 석사학위가 주로 인문 과학 분야의 학문 수련 과정이었던 데 비해 박사학위는 신학·법

학·의학 등 전문 분야에서 주어지는 학위였다. 이러한 석·박사학위가 오늘의 학위과정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과 독일의 대학에서였다. 특히 박사학위가 정규 학위로 발전된 것은 독일에서인데, 19세기 중반에 독일은 근대적인 대학원 교육의 형태를 갖추었다. 독일 대학원 교육의 주된 목표는 學者 養成에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 대학원의 철학부에서 수여하던 철학박사 학위 제도를 미국이 도입하면서 독일 대학원에서 수여한 법학·신학·의학 박사학위는 영역 전문 학위 또는 직업 전문 학위(profession-oriented degree)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는 특히 의학 분야의 발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미국에서는 1786년에 처음으로 College and Academy of Philadelphia(현재의 Pennsylvania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필두로 치의학·수의학·약학 분야 등으로 세분화되었다(이성호, 1987). 교육학 분야에서는 1921년 하바드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육학 박사(Ed. D.)가 수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의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즉, 기존의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철학박사 학위에 상응하는 職業專門學位(licentiate degree)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 2) 大學院 教育의 構造 變化

근래에 들어 각종 전문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고급 인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들이 구미 선진국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업 전문 학위의 목적은 전문 직업 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조예를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술 연구 능력을 고려하여 수여되는 학술 연구 학위에 비해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 식견은 물론 전문인으로 갖추어야 할 實務知識과 應用能力을 중시하는 것이다. 직업 전문 학위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더욱 널리 확산되었는데, 특히 고도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전문 분야별 고급 인력의 수요가 직업 전

문 학위 소지 인력의 양성에 대한 유인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까지의 대학원 교육은 資格用學位(licentiate degree)와 Ph.D.를 취득하기 위한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즉, Ph.D.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용 학위를 우선 취득해야 했던 것이다. 1969년 스웨덴의 박사 학위 과정이 미국의 제도를 따라 조정되었을 때, 자격용 학위는 폐지되고 학문 연마의 필수적인 중간 단계로 흡수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대학들이 다시 자격용 학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증전의 학위 제도와 명칭만 같을 뿐 주요 목적은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원의 기능이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학위 수여 기능에서 노동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인력 양성 기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스웨덴 뿐만 아니라 구미 선진국 대학원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라고 할 수 있다(OECD, 1987).

오늘날 구미 선진국에 있어서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비중을 자극시킨 것은 바로 급변하는 사회 특정 기술 분야의 人力需要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1970년대에 들어와 크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영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의회 보고서(1973~'74)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동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이 갖는 고용상의 기능이 점차 중시되고, 순수 학문적인 기능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특정 전문 직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전문대학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의 하나는 대학원의 연구 훈련 과정을 좀더 통합적으로 專門化(professionalization)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문화란 직업 세계에서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보다 통합적인 지식과 자질의 함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專門化指向的(professionalization-oriented)인 변화의 한 사례를 독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85년 1월 독일의 과학위원회(Wissenschafts-

ftsrat)는 전문 과학도의 양성을 위한 학위 과정의 영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大學院課程(Graduiertenkollegs)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 대학원 과정 대학은 대학 내에 있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의 활동을 통합하여 보다 통합화된 교과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경제·사회·과학 연구위원회는 과거 많은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 학생들이 인접 학문으로부터 고립되어 온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수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기존의 교수 연구 프로젝트와 연결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대학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 하에 특정 분야에서의 대학원 교육이 보다 통합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제 3단계 교육(third cycle education)을 제공하였다. 대학원 교육제도의 세분화를 극복하고 대학간 상호 지원을 위해 고안된 이러한 제도는 의학 분야에서 그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에서도 여러 형태의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는 박사과정 학업 자체의 성격까지도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인 것도 있는데, 특히 대학원 교육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Arlington 대학에서는 응용 화학 분야의 과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학습 과정은 응용 과학 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의 광범위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에서의 경험과 대학의 화학과 교수와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들의 공동 참여와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텍사스대학에서도 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박사학위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각각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모되는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중 하나는 산업체, 나머지 두 가지는 각기 다른 감독자 밑에서 각기 다른 실험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 능력보다는 학문의 적용 범위가 넓고 융통성 있는

實務型 專門科學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대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학자로서의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박사 과정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보다 통합적인 학문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력 양성 과정을 중시하는 전문 대학원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3) 大學院 學生人口의 特性 및 構成의 變化

구미 선진국의 대학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학생 인구 유형 및 특성의 변화에 따른 학생 연령의 고령화 추세이다. 학생 연령의 고령화는 대학 졸업 후 직업 경험을 먼저 쌓기 위해 대학원 입학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몇 년 동안 실무 경험을 한 뒤에 대학원으로 되돌아 오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그리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하바드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경영학 대학원들은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입학 조건과 함께 전문대학원 과정에서의 과정 이수 조건을 강화하고 전문 과목 이수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의 고도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단규(1983)는 이러한 경향의 원인이 전문 직업에서의 연구·교육 인력 및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체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개별적인 욕구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대학원 교육의 형태 변화에 있어서 全日制 학생과 定時制 학생 비율의 변화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 OECD 보고서(1987)에 의하면, 많은 구미 지역의 국가에서 정시제 대학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호주와 스웨덴, 미국 등의 경우 정시제 학생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보다는 다소 낮으나 영국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의 대학원 재학생이 정시제 학생이란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호주와 스웨덴,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시

제 학생의 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대학에서는 정시제 대학원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기에서도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 분야별로 나타난다. 1982~'83년 현재 영국 전체 대학원 학생 가운데 정시제 학생의 수는 예술계와 인문계가 49%, 사회과학과 경영과학이 37%, 의학 관련 분야 44%, 교육 분야 45%, 그리고 과학·농업·공학 계열은 30%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81년 현재 대학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의학 분야가 68%, 자연과학 분야가 32%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시제로 대학원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정 지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976년에는 대학원 학생의 31%가 적업을 갖고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1982년에는 29%로 감소하였다. 사실상 일본은 1983년에 와서야 석사 과정(일반적으로 박사 과정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서 정시제로 공부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정시제 대학원 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앞서 논의된 대학원 학생 인구의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시제 학생 비중의 증대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새로운 학생층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 4) 大學間 協力體制의 強化

구미 선진국의 대학원 제도와 관련된 또 다른 변화 추세는 대학원간, 특히 전문대학원 간의 협력 체제가 널리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반대학원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간, 그리고 전문대학원 간의 상호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간에 교수와 프로그램 및 시설의 협력 및 교류 체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대학원간 혹은 대학원 내 학과 간의 상호 협력 제도가 발달해 왔다. 미국의 대학 협력 체제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대학협

동위원회(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는 미국 중서부 주에 위치한 주요 종합대학교들의 협력 체제이다. 이 협력 체제의 회원 대학들은 모두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이면서 의학·법학·공학·경영학·교육학 등의 분야에 높은 수준의 연구 지향적인 전문대학원과 학과들을 공통적으로 선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 대학들은 학생 수, 학생의 질적 수준, 교수 요원 확보 수준 등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다.

이들 대학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통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교수나 학생 교류의 필요성 때문만은 아니다(유인중, 1984). 다만 어느 대학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개설·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대학 간의 중복을 피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 등 대학원간 협력 체제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특히 신규 분야나 대학 단위로 소요되는 예산, 시설 그리고 교수 요원의 확충이 어려운 분야에서 협력 활동이 활발하다. 특수 지역(아프리카 등) 전문가의 양성이나 특수 언어 프로그램 등이 한 예이다.

대학원간 협력 체제가 요청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문대학원 교육의 經濟性과도 관련이 된다. 특수 분야 또는 학문의 세분화로 인한 신설 분야에 있어서는 수강 학생 규모의 경제성 문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영국 등의 대학원은 대부분 특수 강좌의 개·폐 기준을 학생 수의 크기에 두고 있다. 한 예로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경우 학부 12명, 대학원 6명 이하이면 수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폐강 조치를 한다. 또한 조지 피바디대학에서는 대학원 과목의 표준 수강생 수를 15명으로 정하고, 8~22명을 적정 수강생 수의 범위이자 교수 부담의 표준량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수강 학생 수가 7명 이하가 되면 교수 부담을 반감 산정하고 30명 이상이면 2배 부담으로 산정하여 그만큼 교수 부담을 낮추어 주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김관수, 1983).

대학원간 협력 체제는 한 종합대학 내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의 대학원이 특수 또는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하바드대학이다. 법학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보건대학원 등은 이수 강좌 학점 인정, 강좌의 교차 이수, 그리고 교수진 등의 활용 면에서 매우 활발하고도 효과적인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 런던대학의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Institute of Education의 교류를 들 수 있다. 런던대학 체제에 속해 있는 교육전문대학원(Institute of Education)은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 중심의 전문대학원으로서 교육분야의 각종 석·박사 학위과정 및 비학위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서, 교육대학원의 한 학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교육경제·행정 및 정책 연구 학과(DEAPSIE: Department of Economics,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in Education)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DEAPSIE는 교육 분야의 政策專門家 養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특히 교육의 경제학적 측면과 행정학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DEAPSIE 프로그램에는 4~5명의 전일제 교수요원이 있고 소수의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교수요원의 배경을 보면 교육학자, 경제학자, 노동경제학자 및 정책전문가 등으로서 런던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전문대학원(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강의를 한 바 있거나 현재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그외에도 교육경제학은 다학문적인 학위 과정을 수확한 학자,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의 저명한 개방대학(open university)과 DEAPSIE에 동시 소속된 교수도 있다.

학생들의 배경을 보면 주로 현직 교사나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전문직 경력을 쌓은 비교적 고령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의 우수 기관에서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 및 대학에서 오랜 실무 경력을 갖춘 유학생들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발전, 그리고 자격 혹은 학위 취득을 위하여 진학하는 사람들도 상당 수 포함된다. 이들은 비록 특수 교육 전문대학원이 그들 학업의 근거지가

되지만, 경제전문대학원 등 런던대학에 속해 있는 다른 대학원은 물론 다른 유관 대학 기관에서도 강좌를 듣고 있다.

### 3. 專門大學院 學位課程의 細分化와 革新事例

지금까지 구미 선진국에서의 전문대학원 교육의 확장 변화 추세를 대학원 교육의 전문화, 학생 인구 특성 및 구성의 변화, 그리고 대학원 간 협력 체제 확대의 순서로 개괄하였다. 이에 터하여 본 장에서는 전문대학원 과정이 주요 전공 분야 및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세분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의 학생들의 진학 요구에 부응하여 어떠한 유형의 학위 과정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혁신적인 미국 전문대학원의 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다.

최근에 특히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혁신적인 특수 혹은 전문대학원 과정은 ① 주요 전공 영역의 세분화에서 나타나는 혁신 사례, ② 이질적인 분야를 혼합하여 다학문적 접근을 유도하는 새로운 실무 유형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③ 사회의 대학의 부문, 예컨대 전문연구원, 병원 혹은 기업 등의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신규 혁신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主要 學問領域의 細分化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혁신은 주로 정책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 분석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행정학 석사 과정은 최종 전문 학위로 확장되어 왔다. 과거 이 분야의 학자들은 다른 어느 학문 분야 못지 않게 미국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왔고 이는 정치학과와 행정학과와의 교류 및 상호 학과 교육과정을 출발시켰다(Tombes, 1982). 그 예로 George Washington 대학의 다학문적 접근을 근거로 한 공공 정책 박사 과정이 1982년에 시작되었고 같은 해에 Northeastern 대학에 정책과 사회 과정이 개설된 것을 비롯하여 George Mason 대학의 환경생

물학과 공공정책, Rutgers 대학의 공공 정책과 사회 연구, Pennsylvania 주립대학의 공공 정책과 정책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대학이 인구 밀집 지대에 위치해 있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대학 내에 많은 박사 과정이 있어서 상호 교환 및 교과과정의 연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진이 있다는 점, 기초 및 응용 분야의 대학원 교과과정을 지원하여 졸업생들이 학문 분야뿐 아니라 정부 또는 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의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교과과정 이수 과정의 책임과 교수진이 한 학과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공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정시제 학생이므로 중도 탈락이 빈번하여 박사과정 이수율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전문대학원 과정의 혁신 사례는 특히 教育專門家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교육대학원은 입학 자격이나 선발 기준에서 다른 분야의 대학원보다는 매우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교육과정의 혁신으로는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이 개발된 교육과정, 새로이 나타난 협력적이고 다학문적인 교과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학에서는 교육적 서비스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상담 분야에서 진로, 결혼 및 가족 상담 등 영역의 세분화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들 수 있으며, Evansville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Queens College 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수법 전공 석사 교육과정을 만든 것은 시대의 요구에 따른 혁신의 예로 볼 수 있다(Carroll, 1982). 또한 Northwestern 대학에서 언어 석사 과정에 심리학·교육학·언어학 등의 교수진의 협력을 도입했고, Nebraska-Lincoln 사범대학에서 보건의학에 대한 석사 과정을 만든 것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석사 과정의 혁신은 법대, 의대, 경영대학원 등과 같은 극히 전문화된 전문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생명과학과 산업공학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유형의 박사학위 과정은 다른 학과와의 협력 체제로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혁신은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때 그때 현실적 변화에 부응한 듯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특히 공학·생물과학에서 그러하다(Blount, 1982). 한 예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산업의 투입 과정에 연계되는 교과 과정을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Marquette 대학과 General Electric 회사 간에 전기·기계공학 분야에서 6 학기 3년 과정을 개설한 것이 그 예이다. 이때 감독관을 비롯한 G.E 소속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기용되었으며 졸업생들은 석사학위 및 G.E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제조 기술과 제조 공정에 관련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多學問的 接近에 徒한 實務類型 大學院課程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인 양성의 또 다른 예는 일찍이 노사 문제를 경험하였던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직능 단체 등에서 요구되는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위 과정이 그 예이다. 노사관계론(또는 산업관계론: industrial relations)은 산업 사회에서 僱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 학문이다. 이는 극히 실용적인 학문으로서 학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배출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수곤 외, 1990).

미국에서는 1945년에 미네소타대학의 산업관계학과나 코넬대학의 노사관계대학이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었다. 이전에는 노동경제학·노동법학·인사관리학·사회학 등 전통적 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접 학문 간에 충분한 교류를 갖지 못한 채 세분화 현상만 가속화되어 학문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산업사회 조직 문제의 해결에 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수곤 등

(1990)은 노동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파로서만 취급되어 불량 경제의 '잔여분' 역할을 하면서 고용을 둘러싼 인간의 제반 행위를 단순히 절동적인 經濟人 개념(concept of economic man)으로만 파악해 왔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사관리론 역시 경영의 한 분파로서 미시적인 상황 하에서 경영 내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외부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네소타대학과 코넬대학 등은 주 정부와의 협약 아래 다학문적인 접근에 기초한 보다 통합적인 實務 專門家 양성 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설치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노사관계학 자체가 유사 학과의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통합적 實務 專門家 양성 과정의 한 예이지만, 이것의 교육과정은 탄탄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산업 현장과 관련된 실무 지식을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 3) 大學外 特殊專門職 養成 프로그램

미국에서 출현하고 있는 전문대학원 과정에서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산업체나 산업체 부설 연구소 또는 종합병원 등의 특수 전문 기관에서 부설하는 학위 과정과 같은 극히 특수화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학위 과정은 高等教育의 범주를 대학 캠퍼스 밖으로 확장하는 것이다(Bettters-Reed, 1986). 이같은 혁신 사례는 기업이나 전문 단체들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正規 大學院 교육이나 專門職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대학원 교육 체제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의 특수 학위 과정은 모두 비정규 교육 기관인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시작되어 교육계 외부 인사들에 의해 교무·추진되었고, 전문 석사학위의 수여를 인정받게 되었다.

Arthur D. Little Management Education Institute는 전문 경영 자문 연구소로서 10여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72년에 학위 수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으로 Arthur D. Little Company는 미국 최초로 매사추세츠 주 정부로부터 대학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회사가 된 것인데, 이 회사의 경영자 조직이

경영 과학 석사(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OECD, 1987).

이 학위 프로그램은 나이저리아 경제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나이저리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실제 교육과정은 實用主義에 초점을 맞추어 理論과 實務를 통합하는 다목적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11개월 동안 50 학점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 경영, 경제학, 신입 발달 또는 에너지 경영의 세 분야에서 최소한 700 시간의 교실 수업을 받아야 하며 교수진은 定時制로 가르치고 있다. 대상 학생들은 나이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 남아메리카 및 극동 지역에서 온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건강전문연구소(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Institute of Health Professions)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추진·설립되었다. 이 학위 과정의 주 목적은 건강 치료의 진보적인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최신 훈련 교육과정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성 및 부차적인 학위 수여 계획 과정 달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1977년에 영양학·간호학·물리치료학·언어병리학·건강치료에 있어서 사회사업 석사 과정 등의 5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었고 1982년 현재 11명의 전일제 교수와 30여명의 정시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설립된 왕 연구소 부설의 대학원 과정(The Wang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은 고도의 숙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및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에 개원되었다. 이 대학원은 앞에서 기술한 두 연구소와는 다르게 대학원과 모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모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업종 회사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1982년에 학위 수여 인정을 받았고, 1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전일제 교수진은 전원 박사 학위 및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Bettters-Reed, 1986).

그외에도 Rand Corporation이 설립한 Rand 대학원은 정책 분석학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

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프로그램들은 기업체들로부터 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다(OECD, 198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한 목적 하에서 비전통적인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문대학원의 특성은 다양하다. 우선 이러한 특수 학위 과정은 고도로 특수화된 전문 분야에서 진보된 特殊性의 필요에 부응하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교육과정은 수준 높은 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무의 겸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학위(훈련) 과정을 마친 졸업자들이 직업 현장 및 전문 활동에 직접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박사 과정보다 석사 과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측면의 교육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극히 특수화된 혁신적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기관들은 합법적인 교육 기관이기는 하지만, 역사가 짧아 학위 수여 기관으로서의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위 과정이 다른 대학원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외국 전문대학원의 혁신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기술하고 대학원의 구조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전문대학원의 혁신 사례로 ① 주요 학문 영역의 세분화, ② 다학문적인 접근에 의한 실무 유형 대학원 과정, ③ 大學外 특수 전문직 양성 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비전통적인 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은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서의 전통적인 학위 과정은 학생 유형과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교육 내용 면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혁신 사례는 기업체 부설 대학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특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 <參考文獻>

- 김관수, "대학원간의 협동체제", 「대학교육」, 창간호(1983.1).
- 김만규,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의 위치", 「대학교육」, 제3호(1983.5).
- 김수근 외, "노사관계론(IR)의 학문적 당위성과 연구과제", 미간행 논문, 1990.
- 유인증, "대학원간의 협력체제", 「대학교육」, 제10호, (1984.7).
- 이성호, "석·박사학위의 종류와 명칭", 「대학교육」, 제27호(1987.5).
- Butters-Reed, Bonita, *Search for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Feb., 1986.
- Blount, Don H., "Innovations in Biological Sciences, Industry and Engineering", *Ibid.*
- Carroll, Mary Ann, "Innovations in Education/Cooperative Education/Continuing Education", *Ibid.*
- OECD, *Post-Graduate Education in the 1980s* (Paris: OECD, 1987).
- Tombes, Averett, "Innovations in Social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Graduate Programs*, Oct. 13, 1982.